

남원 도약 위한 국가예산 확보 사활

임실영경귀, K-기능성식품 육성

최경식 시장 주재 '2027~2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가져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15일 최경식 남원시장을 주재로 부시장과 실국소장,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남원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과 2026년도 부처별 주요업무 계획을 면밀히 분석,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국가 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결과 총사업비 8,61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90건을 발굴하였으며, 이번 보고회에서는 발굴된 사업들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융복합 사업의 추진 전략과 부처별 대응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이어졌다.

주요 발굴 사업은 미래신산업, 문화·관광, 정주여건 개선 등 '더 큰 남원'을 위한 핵심 과제들로 구성 △합과우 예술특화지구 조성(500억원) △근초기반 지속가능한 웰스케어서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100억원) △공공의료 거점 K-UAM 시범사업(90억원)



남원시가 15일 최경식 남원시장을 주재로 부시장과 실국소장,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160억원) 등이 포함되어 남원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춘향제 100주년 기념 메모리얼 파크 조성(250억원) △지리산 산악 레포츠센터 건립(150억원) △지리산(休리조트단지) 조성사업(800억원)을 통해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호남권 아전정비지원센터 건립(151억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100억원) △문봉을 중심 시가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275억원) △하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

비사업(54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특히 남원시는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부처를 연초부터 조기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이울러 박희승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굳건히 하여 지난해 국회단계 미반영 된 주요사업이 2027년 예산안에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교통공원 숲속야영장 '인기'

시민·관광객 발걸 이여져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운영하는 교통공원 숲속야영장이 도심과 인접한 최적의 접근성과 울창한 숲에 의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힐링 공간으로 발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에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이곳은, 시내권과 가까우면서도 야영장 인근에 교통산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 속 휴식을 즐기면서 도심 관광을 결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산책과 캠핑을 동시에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1일 개장한 교통공원 숲속야영장은 현재까지 누적 이용객 약 1만 명을 기록하며 남원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라한호텔서 '순창 대표 미식 코너' 운영

순창군이 전주 라한호텔과 손잡고 호텔 내 '순창 대표 미식 코너'를 운영하며, 지역 대표음식을 활용한 미식 관광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대표 향토음식인 고추장불고기 및 순창삼합을 중심으로 한 미식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숙박·관광·외식 인프라가 밀집된 전주 라한호텔과의 협업을 추진해 '순창 미식 코너'를 마련했다.

'순창 미식코너'는 오는 25일까지 전주 라한호텔 조식 뷔페 공간에 마련된다. 해당 기간 동안 투숙객들은 조식 메뉴를 통해 자연스럽게 순창 고추장 불고기와 순창삼합을 접할 수 있으며, 전용 미식코너를 통해 순창의 맛과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메뉴로는 순창 닭은 초콜릿과 콩이빵 등을 시작할 수 있으며, 배너와 안내 홍보물을 비치해 순



창 미식 관광 자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썼다.

이번 사업은 우석대학교 RISE(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와의 연계를 통해 추진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바이오식품 활용 지역특화자원 성장 동력 확보

임실군이 대표적인 자생 약용식물인 '임실영경귀'를 지역농특산품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K-기능성식품으로 적극 육성한다.



극 내서고 있다.

군은 임실영경귀가 간 건강 개선 등 다양한 효능으로 주목받으며 기능성 식품 원료로서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영경귀는 예로부터 간 기능 보호와 해독 작용에 효과가 있는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실리마린(silymarin) 성분은 함유해 간세포 보호와 항산화·항염 작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돼 왔다.

최근에는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증진 등 기능성까지 주목받으며 건강 기능성식품을 비롯해 차, 분말, 추출물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임실군은 이러한 영경귀의 과학적 효능과 환경 자연환경에서 자란 지역 자원의 강점을 바탕으로, 기능성식품 원료 중심의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적

특히 임실영경귀는 지역 계약농가를 중심으로 특허받은 성분 강화 재배기술을 적용한 표표화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무엇보다 약 20년간 연구하며 세계 최초로 생육 시기와 부위별 성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영경귀 성분지도'를 완성하여 원료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이는 단순한 1차 농산물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브랜드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6차 산업모델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군은 앞으로도 영경귀를 비롯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농식품 연구·가공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지역 브랜드 육성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형 킥스타트 사업' 새롭게 개편·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와 지역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남원형 킥스타트 사업'을 새롭게 개편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남원에 투자하거나 이전을 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력 양성과 고용 정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 훈련지원금을 대폭 인상해 기존 1인당 60만 원이던 교육 훈련 지원금을 올해는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인력 양성과 신규 근로자의 현장 적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일터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에 성공한 기업에는 근로자 간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간식 지원과 함께 노사상생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고용 유지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울러 지역 근로자의 워라벨(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직장인 문화의 날'을 새롭게 도입한다. 남원시는 연 2회 지역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영화 관람 행사를 개최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전문가 컨설팅 추진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을 앞두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농업미생물을 보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 분야 박사(송재경 박사)와 전북

대학교 농축생태환경연구소 소속 박사(이덕배 박사) 등 전문 연구진이 참여해 미생물 생산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그동안 축적해온 농업 미생물 활용 노하우와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고품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같은 기간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시설의 증·개축 및 수선 △주요 장비 및 비품 교체 △그릇 및 포장재 교체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등으로, 총사업비의 50%(부가세 제외)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재산상 등 과세 내역, 연 매출액, 거주 및 영업 기간, 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착한 가격업소, 모범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가점을 부여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남원시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4.58%, 3.76%, 2.51%, 1.25%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남원시 재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